

SeaCircle에서의 창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Creativity of SeaCircle

오 정 석, 윤 호 창, 전 현 주, 김 태 헌
SCCA

Oh Jeong-seok, Youn Ho-chang, Jean Hyun-joo,
Kim Tae-hun
SCCA

요약

인류 문명은 철학, 사상,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진화되어 왔으며 그 근저에는 개념의 생성이라는 창조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창조행위의 근거를 영성에 의한 영감의 발현이라 전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개념인 SeaCircle을 통해 창조적 문화 실현을 위한 인식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I. 서론

경제, 문화, 예술 등 현대 문명을 아우르는 다양한 범주에서 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창조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 할 수 있으며 문명의 발전은 곧 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성은 어떻게 발현되고 그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창조적 사례에는 영감의 작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영감의 발현과 같은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문화적 토대로서 SeaCircle의 개념과 SeaCircle 관점에서의 창조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창조성의 개념

창조(創造)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으로 만들’, ‘신(神)이 우주만물을 지음’을 뜻한다. 즉, 창조에는 신(神)과 같은 영(靈)의 작용이 내포되어 있으며 신(神)의 창조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능력, 즉, 생명의 탄생과 같은 개념이 들어있다. 말하자면, 생명의 존재는 곧 영성(靈性)의 표현이며 창조는 이러한 생명을 만드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구에 최초 생명체인 단세포가 형성되었을 당시, 바다 거품에 의해 막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세포로서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어떤 힘이라 할 수 있다.

2. 상징행위로서의 창조

경험론 철학자 버클리는 인간의 정신이 사물이나 물체를 관찰하고 공통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분리, 고찰, 가려내어 추상적인 관념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1] 화이트는 “인간은 상징력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징력이란 외계 外界의 사물과 사건들(things and events)에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부여하는 능력이며, 또한 그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 現象들이 바로 모든 문명 文明 또는 모든 문화 文化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출생의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철학의 핵심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통일적인 구성 원리를, ① 인간정신의‘상징기능(象徵機能)’에서 찾아내고 ② 또한 이것을 정적·고정적인 형식이 아닌, 역동적·생성적인 ‘노작(勞作)’으로 포착한 점 등이다.[2]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는 “인간의 모든 상징 활동은 아무리 피상적인 것처럼 보일 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상징적 연관의 고리, 즉 상이한 양태로 직접 인지되는 지각들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3. 씨씨클의 개념

앞서의 상징행위의 개념을 토대로 문화의 새로운 개념인 ‘씨씨클(SeaCircle)’이라는 용어를 생성하였다. 바다의 거품을 통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 안에 생명이 거했다는 사실과 우주의 존재에 관한 ‘대구조론’에서 각각의 거품은 하나의 우주이며 생명이 거한다는 사실은 모두 ‘거품’이라는 원형 상태 안에서의 생명성을 나타내고 있다. Circle의 사전적 의미는 ‘원주, 권(圈), 궤도(orbit),

순환, 계(界) 등으로 SeaCircle 이란 바다가 가지는 순환성과 생명성,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정 능력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해하면 된다. 즉, SeaCircle은 생명의 탄생과 유지, 순환성을 나타내며 SeaCircle, Open Mind, Spirit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4] SeaCircle이 동시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재귀적 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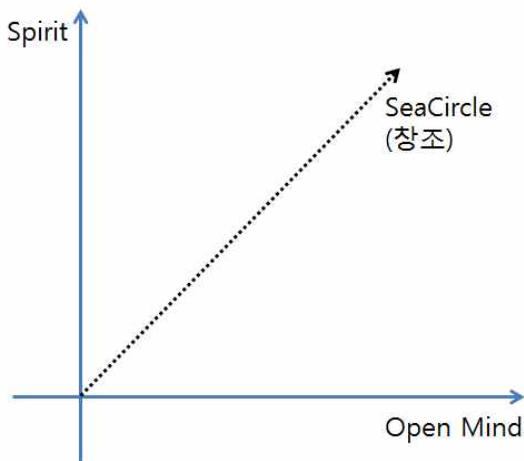
4. 문명 진화의 피드백(Feed-back) 구조

인류 문명사의 특징은 종교를 기반한 피드백 구조를 보여왔다. 예로써 석가의 불교는 인류의 고통을 화두로 출발하여 점차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형성되었고 공자의 유교에 이르러 다시 형이하학으로 내려왔다. 이후 주자학에 이르러 다시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변화되었다.

5. 씨씨클의 창조성 요소

씨씨클에서의 창조성은 Open mind와 Spirit의 요소로 발현된다. Open Mind는 영성의 발현을 위한 개방성, 투명성, 수용성, 사고의 폭 확장, 응용성, 몰입 등을 의미하며 이에 반응한 Spirit, 즉, 영성(靈性) 또는 영감(靈感)의 수준에 따라 창조성의 수준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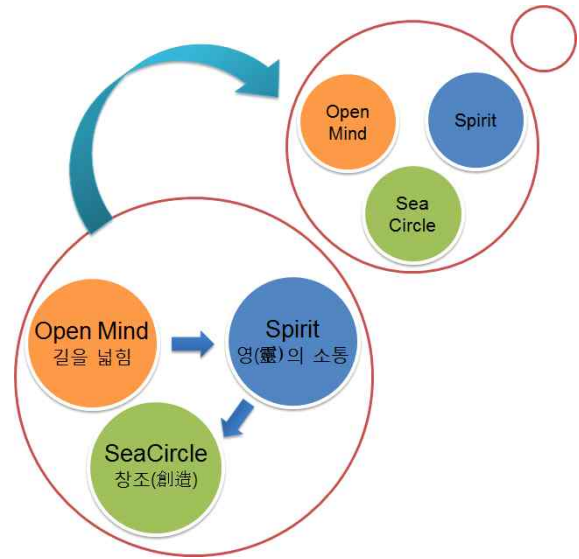
표 1. 씨씨클에서의 창조성의 구조



6. 씨씨클의 재귀적 창조 과정

이러한 구조로 창조되어진 결과는 다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간다.

표 2. 씨씨클에서의 재귀적 창조 과정



III. 결론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의 출현에 있어 세포로 조직되어진 과정을 세포 내 다양한 요소들의 우연적 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어떤 의도 내지는 기획력으로 인해 유기적 조직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해 본다. 씨씨클은 이러한 요소를 영성(靈性), 즉, Spirit의 작용으로 간주하고 창조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 Open Mind와 함께 창조성을 설명하였다. 씨씨클에서의 창조성은 이러한 두 요소의 반응으로 촉진되며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창조를 배태(胚胎)하는 재귀적 구조를 가진다.

■ 참고 문헌 ■

- [1] George Berkely "A Treatise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문정복 역, UUP, 1999, pp. 2
- [2]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 [3] A.N.화이트헤드,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문창옥 역, 동과서, 2003, p.19
- [4] 오정석, 윤호창, "문화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11